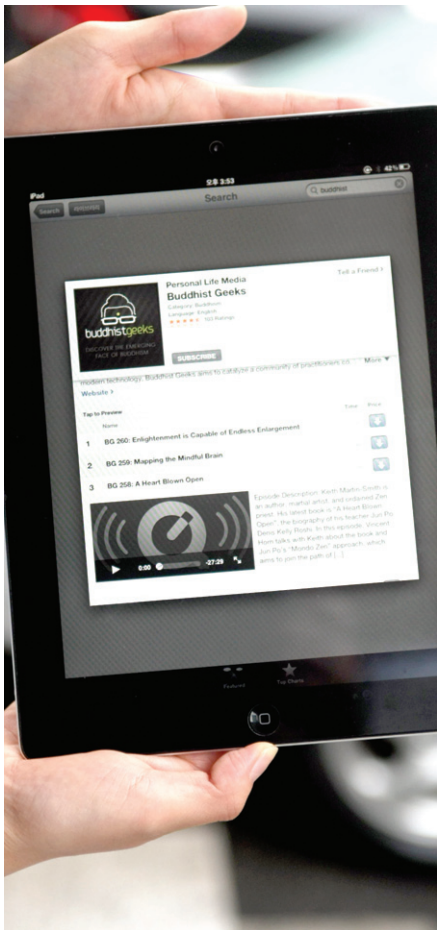


“걸어 다니며 선지식 법문 들어요”

어플에서 유튜브까지 불교 콘텐츠 다양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불법을 접할 수 있는 불교계 콘텐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불교계 콘텐츠를 유튜브 팟캐스트, 어플 등으로 나눠봤다.

어플리케이션… ‘육바라밀’ 출시 예정
현재 불교계 콘텐츠중 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반야심경에서 육바라밀까지 교계 어플리케이션을 모아봤다.

독경 반야심경은 조계종 포교원과 (주) 리토스가 함께 제작한 조계종 최초 어플리케이션이다. 청아한 독경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제공한 참선 이미지를 함께 볼 수 있다. 2011년 1월 무료로 출시돼 다운로드 수 13만(2012년 3월 기준) 건 이상을 기록하면서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헬로달마스쿨은 조계종 포교원에서 출간한 어린이 영어교재 ‘헬로 달마 스쿨’을 기반으로 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이다. 쉬운 영어 문장과 다채로운 삽화로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법회용 영어교재로 불교 핵심 교리와 기본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지혜, 자비, 고집멸도, 기도 수행 등 12개의 중요한 불교 기본 개념과 핵심 교리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출시 예정인 ‘육바라밀’은 간단한 동화 형식의 스토리를 통해 캐릭터들이 대화하며 육바라밀을 배우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불도 놀이(Buddha World)는 출퇴근 시간이나 기타 여가 시간에 게임을 통해 불교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게임이다. 어린이 마음거울 108은 마음

교계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제일 많아 팟캐스트, 동영상 법문 시청 가능

일기를 읽고 실천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바르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마련됐다.

팟캐스트… ‘죽문죽설’ 종교분야 1위
불교계는 법륜스님의 죽문죽설이 종교분야 1위를 다리고 있는 것에 비해 그 활동이 매우 미약한 분야다. 죽문죽설은 대중들의 고민을 스님의 명쾌한 해석으로 풀어주는 법문으로 종교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다. 종교 분야 강의 50위 권 안에 유일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며 사랑을

받고 있다.

용화 선원-유진법사 스님은 하심에 대하여, 내가 본래 부처님, 극락과 지옥은 마음에, 불교의 근본 목적, 인연에 대하여 등 매달 법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진각종 능인심인당 역시 동영상 법문을 올려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짱보리팟’은 불교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다. 기자들이 직접 소식을 접하며 실시간으로 불교 뉴스를 전하고 있다. 명절템플스테이 소식, 봉은사에서 인연을 맺은 부부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식들을 소개한다.

유튜브… ‘정목 스님 자비명상’ 등

다양한 동영상으로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할 수 있는 유튜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목 스님의 자비 명상’은 스님의 목소리를 전하는 명상의 말씀이다. 자비, 용서, 감사 이해, 사랑, 행복 등의 주제를 통해 대중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전해주고 있다. ‘현각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은 조회 수 33,260회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어 금강경강좌다. 불교와 영어 공부를 겸하고자 하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한마음선원 다양한 SNS포교 눈길

한국불교 최초 인터넷 포교 이어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한국불교 최초로 인터넷 포교를 전개한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산하 한마음과학원과 한마음저널의 다양한 SNS포교를 전개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은 ‘과학원 한마음’이란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한마음공생실천과정과 범회 등을 중계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 커뮤니티’의 경우 조회 수 300여 회에 달한다.

한마음과학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maum.hansi)과 한마음저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hanmaumjournal)은 700여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 특히 한마음선원의 경우 신도회에서 각종 법회와 행사에서 트위터를 통해 행사를 소개하며 해외지원도 트위터를 통해 서로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또 한마음선원 본원은 홈페이지(www.hanmaum.org)의 한마음미디어 코너를 통해 1994년부터 대행 스님이 전국에서 진행한 법문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한마음과학원측은 “최근 미디어의 발달에 맞춰 포교지형이 변하는 만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이용한 다양한 포교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카페로 자비명상 홍보…회원수 7천명 넘어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저절로 포교는 이루어집니다”

최근 마가 스님의 페이스북은 생일을 맞은 스님을 축하하는 글 수십 건이 게재됐다. 스님은 이 많은 글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댓글을 달며 그들의 축하에 감사해 주었다.

스님은 이처럼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한다. 스님의 일상에서 느끼는 글은 물론, 강연 및 법회 일정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알린다.

스님은 문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등 시대의 흐름을 따라 꾸준히 온라인을 매개로 한 대중들과의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스님이 이렇게 대중들과 온라인으로 소

통을 시작한 것은 수없이 많이 쌓인 명함을 발견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고 말한다. “어느날 엄청나게 쌓인 명함을 보게 됐어요. 그 명함을 다 정리해보니 1500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는 이 사람들을 대부분 알지 못했어요. 그들과 소통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오늘의 명상이라는 내용의 문자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죠”

이후 스님은 인터넷카페인 자비명상카페를 개설, 현재까지 회원수 7천 명을 확보하면서 자비 명상을 알리어나가게 된다.

스님은 SNS의 세계를 인드라망과 같다고 말한다.

“스마트폰 안에 세상 모든 게 들어있어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가는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알릴 수 있어요. 여기에 강연 일정을 올리면 페이스북의 강연 신청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자비명상 강의 신청자 수는 페이스북을 한 이후 30% 정도가 늘었어요. 어떤 날은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분이 제 페이스북이라고 하더군요. 이처럼 서로가 연결돼 있는 세상이 살고 있다는 것을 스마트폰이 보여주고 있어요”

스님은 최근 캠프를 구입했다. 명상 법문을 동영상으로 찍어 좀더 적극적인 SNS 포교를 하기 위해서다. 스님은 SNS 포교는 스님들의 몫이라고 말한다.

“대만은 스님들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사실 종교인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그 종교의 기능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 부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 때 저절로 포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매개체로 SNS는 무척이나 소중하고 고마운 도구입니다”

정혜속 기자 bwjhs@hyunbul.com

페이스북 통한 대중과 소통 큰 인기



美 햄프셔대 교수 헤인 스님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에 온전히 관심을 가져 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정말로 같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10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헤인 스님의 글이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 글은 일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있다. 스님은 자신의 블로그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다. 하지만 스님은 처음부터 대중들을 의식하고 글을 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스님이다 보니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찰의 글을 많이 올리게 됐어요. SNS

의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신변잡기적인 글이나 어떤 이슈에 대해 비판이나 공격하는 글이 많이 올라오지요. 그러다보니 일상을 돌아보며 소소한 깨달음을 주는 제 글이 호응을 얻는 것 같아요”

스님은 SNS에 글을 남기는 일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중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해와요. 남편과 관계가 안 좋은 주부, 사랑하는 누군가를 잃은 사람, 취업이 안되는 학생 등 인생에서 여러 가지 아픔들을 호소해 오죠. 제가 그들에게 위로의 글을 남기는 것

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들 합니다” 스님은 최근 베스트셀러 작가, 방송 강연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제가 일일이 다 답 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그게 미안해 콘서트를 열어 많은 대중과 좀더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스님은 앞으로 젊은층은 물론 비불자들이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일간지에서 왜 스님들의 책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될까에 대해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포용성이라고 하더군요. 때문에 불교적인 틀이나 색채를 굳이 넣지 않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저절로 포교가 되지 않을까요?”

스님은 올 연말 저소득층 어린이들과 암환자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또한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스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도 스님은 꾸준한 SNS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

정혜속 기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단체주문 책도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사은 행사
정골요법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무료증정품

이재복 지음(270면) 정가 12,000원

빛살림

척추교정운동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녹아버리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죽음을 기다리다가 무심코 『발치기』 운동으로 기적같이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 운동으로 죽을 병 고친사람, 몸이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강해진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하면 제 병을 제가 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 운동은 무병장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골격이 비뚤어져서 생기는 병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내장질환의 발병원인은 골격이 비뚤어져 척추 신경이 눌려서 발생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중다는 곳 다 다녀보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도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의 종결 코-스

침, 뜸, 부항,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요법, 무중력감압치료, 수술을 받아도 여전히 고통이 계속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료받을 때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재발하는 이유는 척추를 감싸고 있는 기립근육을 풀어주지 않고 척추의 토대인 골반을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스로 골격을 바로잡아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십견,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관절통, 고혈압, 당뇨, 안면마비, 위장병, 수족냉증, 두통, 이명증, 전립선, 피부병, 백반증, 아토피, 알레르기, 건선, 부정맥, 만성피로, 상기증은 골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다는약 다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는다면 몸속을 대청소하라

독소가 우리몸을 공격하고 있다.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는 독소가 짙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만성병을 이기는 놀라운 디톡스요법 공개!

몸속에 쌓인 독소와 뼈속에 들어있는 냉기를 썩~ 뽑아내서 자연치유력을 높이는 동양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건강법 수록!

■ 책 구입안내
책값 12,000원을 입금하시고 전화로 주문하시면 책2권을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예금주 김 순 옥

■ 위 치 : 경북 영주시 단신면 구리 901 소백산수련원

책신청 : (054)637-9810

정골본기(이영숙) 서울송동1가 14-35우영빌딩4층 제210-서울송동 0204호